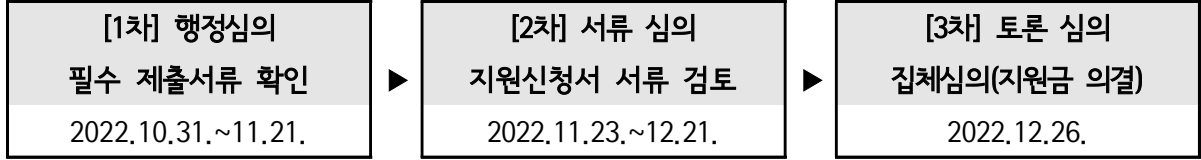


2023년 청년예술지원사업 심의결과

□ 접수기간



□ 심의위원회 명단

※ 성함 가나다 순

| 연번 | 성함 | 소속/현직 |
|----|-----|----------------------|
| 1 | 김보라 | 안무가, 아트 프로젝트 보라 예술감독 |
| 2 | 나현 | 시각예술 작가 |
| 3 | 민정아 |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과 교수 |
| 4 | 박정용 | 벨로주 대표 |
| 5 | 정진세 | 연극연출가, 극단문 대표 |
| 6 | 정한아 | 시인, 한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

□ 세부 선정결과

※ 성함(단체명) 가나다 순 / 단위 : 원

| 연번 | 관리번호 | 성함(단체명) | 사업명 | 지원결정액 |
|----|-----------|---------|--|------------|
| 1 | 202303521 | 걸작들 | 신호수VS신호수 | 10,000,000 |
| 2 | 202304856 | 구궁 | 첫 번째 프로젝트: 경기의 소리 | 9,860,000 |
| 3 | 202304093 | 국악그룹보름 | 길 위의 노래 (부제: 고가신조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 10,000,000 |
| 4 | 202305017 | 권수연 | 70페이지를 펴시오 | 9,926,466 |
| 5 | 202304633 | 김민경 | 시스터 시티: 지도의 바깥 | 10,000,000 |
| 6 | 202300628 | 김보은 | 서로 기생하기 | 9,882,500 |
| 7 | 202303703 | 김용빈 | 숨겨진 몸을 가시화하기 | 10,000,000 |
| 8 | 202303771 | 김추수 | 들리지 않게 들려주고 싶은 말 | 9,993,362 |
| 9 | 202300318 | 노송희 | Dialogue-Diagram-Diorama | 10,000,000 |
| 10 | 202303274 | 문세린 | 문세린 개인전 《오늘 출발(가제)》 | 10,000,000 |
| 11 | 202301958 | 박기덕 | 박기덕 개인전(가제) | 10,000,000 |
| 12 | 202301202 | 박효정 | 박효정 개인전 <MOVE> | 10,000,000 |
| 13 | 202303999 | 배정찬 | 장구 프로젝트 <장단의 맛> | 10,000,000 |
| 14 | 202303143 | 변창준 | 변창준의 초연 정중동(靜中動) | 9,694,050 |
| 15 | 202300960 | 서유리 | 몸이라는 섬 : WMLAlive | 10,000,000 |
| 16 | 202301595 | 손경민 | 부푼 태양 (Swelled Sun) 부제: How to Sense the Invisible (어떻게 보이지 않는것을 느끼는가) | 10,000,000 |

| | | | | |
|----|-----------|-----|---|------------|
| 17 | 202303150 | 안우주 | 리틀리틀의 모험 | 10,000,000 |
| 18 | 202303385 | 양진아 | 눈/눈 | 9,941,000 |
| 19 | 202303448 | 이강산 | 렉처 콘서트 마주; 해(奚) | 10,000,000 |
| 20 | 202303227 | 이아름 | 可愛 Lovable | 10,000,000 |
| 21 | 202304899 | 이인승 | 대체역사와 멀티버스를 활용한 '용(龍)' 만들기 세계관 발표 | 10,000,000 |
| 22 | 202304527 | 이지연 | 보이지 않는 풍경2 - 짝 찬 것과 텅 빈 것의 세계 | 10,000,000 |
| 23 | 202302910 | 이지현 | 이지현개인전<물에비친달그림자-空明> | 10,000,000 |
| 24 | 202303101 | 장윤하 | 쉬는 시간 | 10,000,000 |
| 25 | 202301046 | 전강희 | 플라뇌르(Flâneur) 서울 | 10,000,000 |
| 26 | 202303131 | 전청림 | 무릉도원 | 10,000,000 |
| 27 | 202304818 | 정민영 | 페달을 찍어라! (Stamp On the Pedal!) | 10,000,000 |
| 28 | 202302558 | 정우미 | 블루베리 나무(가제, Blue Prayers on a Blueberry Tree) | 9,987,000 |
| 29 | 202303833 | 정재필 | 쓰로우 | 5,950,000 |
| 30 | 202303839 | 정진아 | 없는 산, 상패 (Making a map about invisible Mt. SANGPAE) | 10,000,000 |
| 31 | 202302642 | 조다솜 | 고스트 댄스 - 춤으로 쓰는 유서 | 10,000,000 |
| 32 | 202303941 | 조다운 | 내집장만 아카데미 | 10,000,000 |
| 33 | 202302828 | 조수인 | 클라이스트를 아시나요? - 칠레의 지진 | 10,000,000 |
| 34 | 202305089 | 주예린 | 기획전시 <Hey Siri, How's the weather today?> | 9,997,500 |
| 35 | 202304309 | 최다이 | 사근으로부터 | 10,000,000 |
| 36 | 202304000 | 최형준 | <야외 설치형 이젤> 프로젝트 | 10,000,000 |
| 37 | 202302901 | 한지훈 | IN GOD WE TRUST | 10,000,000 |
| 38 | 202301374 | 현지윤 | Voice of Women | 9,959,000 |
| 39 | 202302475 | 현희진 | 시집 『동물심 번역기』 발간 | 9,519,200 |
| 40 | 202301764 | 황성욱 | 황성욱 개인전 | 10,000,000 |

2023년 청년예술지원 심의총평

청년예술인의 첫 작품 발표 지원을 통해 예술계 진입과 창작활동을 위한 제반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2023년 청년예술지원사업에는 총 530건의 지원신청이 있어 청년예술가들의 관심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술가로서의 고민과 앞으로의 작품 세계 구현에 대한 고민과 시도, 기존 예술계와는 구분되는 신선한 시각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심의 기준은 창작활동의 예술성과 독창성, 수월성을 가장 비중 있게 고려하였으며, 지원신청서를 바탕으로 지원자가 제시하는 작품의 실행 가능성과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비전과 고민을 제시하고자 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결과에 대한 청사진을 포함한 경우 본 지원사업에 부합하는 경우라고 판단하였다.

존재에 대한 미래적인 질문들에 대한 창작주제가 대체로 많았으며, 그중 자신만의 독창적인 표현방법들이 등장하며 그 방법을 동시대적인 관점으로 구현하려는 예술인들을 만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심의에 임할 때도 단순히 기획서에 제시된 작품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가 하고 있는 존재론적 고민과 시대적 맥락을 함께 고려하게 되었다. 그런 과정에서 그동안 꾸준히 해왔던 활동에 대해 잘 정리한 기획서의 경우에는 큰 도움이 되었다. 계획이 아주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시도 그 자체를 통해 예술가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작업에도 자연스럽게 주목하게 되었다. 기성이 생각할 수 없는 참신하고 새로운 방법론, 썬의 고질적 문제에 대한 출구전략을 떠올려준 작업도 그 발상과 참신함에 감탄하였다.

또한 이번 공모에서는 2022년을 살아가는 예술가 자신의 개성과 정체성, 고민을 담고 있는 기획서를 다수 마주할 수 있었다. 경향성이라는 이름으로 한데 묶어내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동시대 예술가의 비슷한 생각들을 읽어낼 수 있었다. 거칠게 나열하자면, 일단 장애와 장애예술, 배리어프리에 대한 관심이 엿보였다. 코로나 시대를 경유하며 이제는 익숙해진, 인공지능, 메타버스, 가상공간, 게임 등의 소재도 많았고, 비물질, 알고리즘, 코딩 등의 기술 융합적 예술 활동도 눈에 띄었다. 지난 코로나 시기에 대한 성찰, 혹은 현재의 기후위기 시대에 대한 예술가적 고민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는 식물과 동물 등의 비인간에 주목하고 인류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작업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년예술인으로서의 입지가 불안하고, 다양한 실험과 도전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예술철학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보니 지원신청서상에 본인들의 생각이나 활동계획을 표현하는 것이 다소 어려워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전반적인 예술활동에 대한 제안이 다소 관념적이거나 형이상학적으로 제시된 경우도 있었으며, 예산의 구성과 내용이 해당 활동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예술성이나 독창성을 관념적으로만 해석했거나, 제한된 예산 안에서 실행이 어려워 보이는 활동, 향후 지속적인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끝으로 청년예술인들의 어려운 창작환경에도 지속할 수 있는 에너지와 열정에 감사함을 표하며, 예술의 고유한 경계를 넘어 지원 작업으로써의 첫발을 내딛는 예술인들의 미래의 시간에 응원을 표한다. 세기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질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창작작업으로 사유의 확장이 지속되길 바란다.